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 2000년도 표어 ⊗

"우리의 소망되신 예수 그리스도" (딤후1:1)

⊗ 행동지침 ⊗

- 1. 하나님의 전(殿)을 짓는 해가 되도록 한다.
- 2.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한 세기가 되도록 한다.
- 3.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확장하는 새 천년이 되도록 한다.

발행인: 이종윤 발행처: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737-3 전화 (02) 517-7651~5 팩스 (02) 512-1225 http://seoulchurch.or.kr

홍해작전 승전 앞으로 일주일



오늘 진군 13일째를 맞이한 2000 홍해작전은 전교인이 참여하여 매일 새벽 불을 밝히며 승전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나의 사랑 서울교회여 일어나서 함께 가자"(아2:10)라는 올해 표어에 따라 성도들은 산상보훈의 진수를 들으며 일곱 가지 제목으로 기도를 드리고 있다. 또한 ① 하나님의 전을 짓는 해가 되도록 한다 ②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한 세기가 되도록 한다 ③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확장하는 새 천년이 되도록 한다 등을 행동강령으로 교회주변청소, 노방전도, 새 예배당 건축현장 방문 등 천국시민의 삶을 훈련하고 있다<관련기사 3면>.

2000 홍해작전은 앞으로 일주일 남았다. 다

음 주일(25일)은 전 교인 총진군의 날이며 찬양예배 시 승전감사예배를 드린다.

내일(19일)은 탕감일

홍해작전 참모본부에서는 아직 참여하지 못했거나 참여하다가 도중에 멈춘 성도들의 분발을 요청하면서 그동안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치 못한 성도들을 위해 내일(19일)은 탕감일로 정하고 일어나 함께 가기로 했다.

홍해작전 기간 중 참여하는 성도들은 매일 아침 그림조각(피즐)을 받는데 20조각을 모두 받아 맞추면 우리 교회 새 예배당 그림이 완성된다. 그간 결석으로 받지 못한 부분의 그림은 내일 모두 받을 수 있게 된다.

교회학교 교사세미나 22일 개최

2000년 교회학교 교사세미나가 22일(목)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교회당에서 열린다. 주제는 "우리의 소망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번 세미나는 7시까지의 육상 식당에서 친교 시간을 갖는다. 7시부터는 2층 예배당로 이동하여 김태기 장로의 개회 기도를 시작으로 강의와 기도회가 진행된다.

강사는 이은옥 권사(대학부)로 학습자의 동기 부여를 중심으로 강의가 진행된다. 이날 강의되는 내용은 교육의 개념, 대상에 대한 이해,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가,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

가, 그리고 동기부여의 이론과 전략 등에 관해 강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6월 학습·세례식

6월 학습·세례식이 21일(수) I·II부 예배 시 거행된다. 이에 앞서 학습자 교육은 11일(주일), 세례자 교육은 18일(주일)에 2층 예배실에서 각각 있다. 이에 미참하신 성도는 19일(월)추가 교육을 받을 수 있다. 학습·세례자 문답은 20일(화)에 있다.

교구 활성화를 위한 새 편성 다음 달부터 시행 본격화

새 예배당 시대를 앞두고 교구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교구 편성과 다락방 조직이 7월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새로운 교구 편성의 특징

이번에 변경되는 교구 편성의 특징을 살펴보면 우선 새 예배당 주변을 중심으로 12개 교구가 재배치된다. 이에 따라 대치, 개포 지역이 1교구로 편입되게 됐다.

특히 청년, 직장 등 지역 개념을 탈피한 특별교구도 이번에 도입됐다.

다락방제도는 광역 개념을 채택했다. 특정 지역별 조직에서 지역·나이·직장·취미·신앙 등을 고려하여 특성별로 교구 내에서 자유롭게 구성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다락방 명칭도 지역명이 아닌 101, 102 등이나 특1, 특2 등으로 바뀐다. <관련기사 4면>

또 지역 교구에서 독립된 직장 등 기타 다락방 조직도 특별교구가 구성됨에 따라 가능하게 됐다.

다락방의 인원 구성은 3-5명(세대) 정도로 세분시키고 모이는 시간도 금요일을 원칙으로 하나 필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했다.

새가족부 수료자는 기존 다락방에 소속되거나 필요하면 새 다락방을 구성할 수 있게 된다.

7월 첫 주 일꾼 임명

7월부터의 새로운 교구 편성과 다락방 조직 운영을 위한 교구 일꾼 임명식이 7월 첫 주에 거행될 예정이다. 다락방장 교육 미필자 중 부득이 임명을 받는 이는 서리로 임명된다.

제자의 도 ⑦

하나님께서 “No”라고 대답하실 때

사무엘하 7장 18 · 29절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니가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여 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만장래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까 주여 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주여 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시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까 그런즉 주 여호와여 이르므로 주는 원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은이니이다 ...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까 여호와 하나님이어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셨사오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이중운 목사

지도자는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일을 생각하고 결정 하되 자신이 원하는 대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깊게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우리의 기도에 'Yes' 라고만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No' 라고 응답하십니다.

다윗 왕은 성전 짓기를 하나님께 간절히 소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성전을 지을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성경에는 기도에도 하나님의 긍정적인 응답을 받은 사람도 많이 있지만 부정적인 응답을 받은 사람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1. 부정적인 응답을 받는 기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자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러나 믿지도 않으면서 구하는 기도는 물리치십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라는 예수님의 말씀 속에는 믿음이 전제되고 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의 기도라 할지라도 마음에 죄를 간직한 채 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물리치십니다(사 59:1-2). 죄는 담이 되어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그러므로 죄를 품은 채 하는 기도는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습니다(시 66:18). 죄를 그대로 둔 채 아무리 기도하고 금식을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한편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기도는 응답받지 못합니다(약 4:3).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구한 대로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사람은 무엇을 구하든지 그대로 받습니다.

2. 다윗의 기도

다윗의 기도는 불신앙의 기도도 아니요 그 마음에 죄를 품지도 않았으며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기도도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기도는 하나님께 거절을 당했습니다. 그에게는 성전을 지으려는 순수한 동기가 있었고 바른 목표가 세워졌었고 영적인 상태는 최고에 달했었습니다.

다윗은 주위의 원수를 무찌르고 궁에서 평안히 거할 때에 성전을 짓겠다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삼하 7:1). 이것은 책임 있는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생각을 어리석게 여기셨습니다. 다윗이 책임 있는 기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를 거절하셨습니다.

다윗은 또 깨끗한 기도를 했습니다. 궁궐을 확장하고 군대를 확장시킬 일을 걱정해야 할 그가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삼하 7:2)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집을 세우기를 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를 거절하셨습니다.

다윗의 기도는 영성이 있는 기도였고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요단을 건너

가나안에 가서 하나님의 전을 짓도록 명령하셨습니다(신 12:10-12). 다윗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바 모세가 하지 못한 일을 자기가 하겠다고 한 것입니다.

다윗은 이와 같이 책임이 있고 깨끗하며 영성이 있는 기도를 했습니다만, 하나님은 'No'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3. 다윗의 기도가 거절당한 이유

다윗은 하나님께서 성전이 필요할 것이라는 생각의 유희를 받았습니 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역사하시는데 미물만도 못한 인간이 무엇을 하겠느냐고 말씀하십니다(삼 7:7-8).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동의나 의지적인 결단이 없이도 당신이 원하시는 바는 반드시 이루십니다. 다윗의 결심과 동기가 아무리 고귀하고 아름답다고 할지라도 그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지 못한 잘못이 있었습니 다.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리 열심을 내고 정성을 다해도 하나님 일은 이를 수 없습니 다(요 15:5).

많은 사람들은 다윗이 밋세바와 더불어 간음을 했기 때문에 성전을 건축하지 못했다고 했으나 그가 성전을 건축하지 못함은 피 흘린 죄값 때문이었습니다(대상 22:7-8). 하나님께서는 전쟁의 용사로 승리를 거둬하던 다윗에게 모든 목숨을 붙여 주셨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다윗이 단순히 전쟁을 하여 피를 많이 흘린 것은 성전 건축을 하는데 부적합한 이유가 되지 못합니다. 그가 성전을 건축하지 못한 이유는 악한 일을 하다가 피를 흘렸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기도에 'No' 라고 하신 것은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다윗은 눈에 보이는 성전을 짓겠다고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어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삼하 7:11, 13, 16).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후손을 견고하게 세우셔서 그들로 하여금 성전을 건축하도록 하셨습니다(삼하 7:12). 만일 다윗이 성전을 세우고 후손이 망하게 되면 그 성전은 아무 것도 아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기도를 물리치신 것이 아니라 더 좋은 것을 주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이 자신에게 개인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진리를 배웠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하면서도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하나님이 주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모든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우리가 바른 것을 구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No' 라고 대답하실 때에는 더 크고 좋은 것으로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이 개인적인 것이 되도록 하나님의 언약을 찾은 기도를 씬 없이 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높은 신앙의 차원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선교회

빛의 자녀들처럼

나중영 (집사, 엘리야선교회 회장)

서울교회가 2000년 웅비의 새성전시대를 이미 예고하고 있으며 영적 부흥의 역사적 전기로 준비하고 있는 일련의 구명사업 가운데 독립된 기존 교구를 통합하여 5년 간격의 동년배끼리 조직을 재정비 일원화한 조치는 새 시대에 걸맞는 원대한 새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발맞춰 엘리야 선교회가 산고를 끝내고 성장의 첫 해를 맞아 함께 기도하는 삶, 함께 선교하는 삶, 함께 즐기 봉사하는 삶이 공동의 믿음의 삶을 실천하고 뛰어난지 반년의 세월이 다져지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몇몇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신실한 헌신적인 믿음의 부부들을 배출하여 믿음의 토대를 더욱 굳건히 할 수 있음은 형언할 수 없는 기쁨이 아닐 수 없습니다. 더불어 엘

리아 선지자의 걸출한 영성의 삶을 표준으로 하여 이를 닮아 가려는듯 조직 안에 향기롭게 펼쳐지는 지고의 헌신적 노력은 진행하는 역사 속에서 더욱 영롱하게 보석처럼 반짝이고 있습니다.

70여 명의 풍부한 인적 자원을 확보하고 있는 우리 엘리야 선교회는 회장단과 더불어 전도, 구제, 예전, 교육, 봉사, 찬양, 교구부 등 7개 분과와 이를 이끌어 나가는 부장, 차장, 회원으로 분담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교회의 각종 현안 추진 사업에 일차적으로 부응하고 있음은 물론 새 예배당 건축 현장 탐방 기도회와 매주 금요기도회에 참석을 상례화 하고 있는 한편 홍해작전과 70인전도대 활동에 주력부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영령상으로 50대 후반의 인생의 황금기요 성숙기라 할 수 있는 이 시기에 존재의 좌표가 믿음의 중심축에 있음을 더 깊이 자각하면서 감사하고 기뻐하며 여분의 삶을 헌신과 성실로써 채우고자 합니다.

주전 800년 중엽에 북이스라엘 왕국에서 생존한 엘리야 선지자는 당시 바알 숭배자 450명과 갈멜산 정상에서 역사적인 기도의 현장 대결을 벌이므로 마침내 참된 진리가 어떠한 것이며 역사의 주권이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를 통쾌하게 증명했습니다.

그후 2천 수백년이 지난 오늘에도 서울교회 엘리야 선교회가 당시 갈멜산 상에 찬란히 나부끼던 하나님의 진리의 승리의 깃발을 다 시금 은 세계가 분명히 바라볼 수 있도록 더욱 견고히 세우는 사명을 부여받고 있다 할 것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엡 5:8).

“새 예배당 건축 현장에서 드린 찬양”

이덕빈(집사, 아브라함선교회 총무)

우리 선교회는 65세 이상 낡자 성도로 구성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주로 75세부터 85세의 성도들이 대부분입니다. 외견상 빈약하게 보일 수도 있으나 우리 회원들은 본 교회 창립 후 개편 전의 모세선교회 때부터 오늘 날까지 교회의 크고 작은 일에 동참하고 있는 소수 정예 교우들라고 자부합니다.

사실 본회 대상인 65세 이상 되는 분은 120명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임에 참석하시는 분은 그보다 훨씬 적은 수입니다. 이는 고령으로 활동이 쉽지 않기에 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활동이 가능하시다면 우리 구원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남은 여생을 교회에, 또 선교회원으로 봉사하다가 소천한다는 믿음의 확신을 갖고 우리 회에 동참할 것을 권합니다.

우리 선교회는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새 예배당 건축현장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앞서 우리는 2층 예배실에서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건축현장을 방문하는 이 날 우리 회의 원로 장로인 임광식 회장을 중심으로 노익장인

부회장 김진호 집사(85세) 등 회원들과 준회원인 권사님들이 함께 기도회에 참석하게 하여 주심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기도회는 이성득 목사님의 주재 하에 합심기도를 올리고 특히 우리 회원의 배가 운동으로 새 예배당 시대에 따른 경로 대학 개설을 우리는 기원하였습니다. 이어 바로 현장으로 가서 건축 현황 설명을 듣고 주변을 돌아 보았습니다.

작년에 왔을 때는 지하 수십 미터 바닥 공사를 하는 것을 보았는데 지금은 4층 바닥 공사가 완료단계였습니다. 사고없이 순조롭게 예정표대로 진행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다 같이 감동,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어 우리는 이천 온천장으로 향하였습니다.

다. 사실 우리 노인들은 심신이 노쇠하여 회장님 이하 일거수 일동작에 불편함이 그지 없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야외에 나가 자연을 찬미하며 하나님의 오묘한 우주 만상을 볼 때 그리고 온천장에서 교우끼리 회포를 나누며 흥금 없이 교제를 나누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 일인지 젊은 사람들은 모를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노인들은 소외된 무료함을 교회와 선교를 통하여 소망하고 있음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차량 준비부터 노인들을 아끼지 않고 돌보아 주시고 또한 간식도 제공하는 등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00 홍해작전

산상보훈 노트

- 우리의 구제는 먼저 주님께, 영적인 돌봄과 더불어, 희생으로 해야 한다(마6:1-4).
-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주는 것이다(잠19:17).
-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한 것보다 더 많은 것으로 대답해 주신다.
- 하나님 아버지께, 그리스도를 통해, 성령 안에서 기도하자!
-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나의 아빠시다.
- 하나님의 많은 이름은 그의 성품을 나타낸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하면 하나님의 이름과 관계된 하나님의 품성이

존귀히 여김을 받는 것이다.

-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 나라 위에 있으며 그 나라는 의와 평강과 화락이 있는 영적인 나라다(롬14:7).
-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요일5:14-15).
- 자비의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가 당신에게 오도록 부르시며 '오늘날' 그리고 '일용할' 이라는 말로 구할 것을 요구하신다.
- 주님께서는 말씀과 기도로 시험을 물리치셨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라는 기도는 모든 사람이 다 시험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과 시험을 이기는 방법도 있음을 시사한다. - 다음 호에 계속 -

분 단 55년 만에 남북정상회담이 평양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서 대립의 해소와 이산가족문제, 경제 협력 등 통일을 지향하는 공동 선언이 발표됐다. 이후 서로 가시적인 변화를 보여주는 움직임도 이어졌다.

아직 직접 북한에 갈 수 없는 대부분의 국민들은, TV카메라가 움직이는 대로이기는 하지만, 북한의 일면을 보게 됐다. 주로 식량난과 탈북자들, 핵무기 의혹 등으로 비춰지던 북한의 모습과는

사뭇 다른 광경이었을 것이다. 북한 최고지도자의 소탈한 목소리도 그대로 전달됐다. 평양 거리를 뒤덮은 군중들의 환호는 볼거리를 넘어서 희망의 한 모퉁이를 다시 보여주는 계기가 됐다. 어쩌면 당장이라도 통일이 될 듯한 착각에 빠질 정도다.

그 동안 우리에게 통일은 무엇일까 라는 질문과 대답이 수없이 있었다. 민족 동질성을 그 바탕으로 말하기도 하고, 더 나아가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들먹이기도 한다. 생존의 문제를 생각하기도 한다. 혹자는 돈을 벌 수 있는 새로운 기회로 보기도 한다.

사실 통일은 통일 그 자체로서는 의미가 없을 것이다. 통일로 인해 우리가 더 인간답게 살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어야 그 의미

를 찾을 수 있다. 이는 당연히 물질적인 것대로만 측정될 것은 아니다.

통 일이 비록 미래에 대한 것이기는 하나 자신을 되돌아보지 않고선 진정한 화해와 협력이 어렵다. 우리가 철저히 하나님 앞에 우리의 과오를 회개했는가? 분단을 국제 정치적 상황의 산물일 뿐으로 이해하는 것은 흑제 도적 통일로 이어진다 하더라도 우리 마음을 하나로 엮는데는 부족하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회개가 없이는 진정한 통일은 불가능하다. 그분만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다.

분단 후 독일 교회 지도자들이 철저한 회개의 고백서를 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한다. 독일인들이 통일에 이르기까지 각각 다른 시대적 정서를 거쳤음에도, 결국은 통일이라는 결과를 얻는데 나름의 기여를 했다고 평가받고 있지 않은가.

우리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은 한반도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담당할 주역이다. 미움과 힘만으로도 되지 않고 회개가 없는 화해만으로도 될 수 없다.

우리의 회개를 바탕으로 그리스도의 사랑과 용서의 큰 그릇에 남과 북을 함께 담을 그 날이 기대된다.



■ 교회학교 소식 ■

“사랑부 달란트시장에 초대합니다”

사랑부에서는 다음 주일(25일) 사랑부 예배 후 달란트 시장을 연다. 이날 달란트 시장은 선생님, 부모님, 전도할 친구와 자신을 위해 구입할 수 있는 물건들이 각각 구별되어 있어 학생들에게 물건을 구입하는 즐거움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베푸는 즐거움까지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사랑부 달란트 시장은 무엇보다 여러 교우들의 관심과 협조가 요청된다. 가정에서 사용하지 않는 물건 가운데 사랑부 학생들에게 필요한 물건이면 무엇이든 찬조할 수 있다.

사랑부 달란트 시장이 온 교회 성도들이 함께 참여하는 사랑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 (문의/부감 남태순 권사 563-1289)

새로 편성되는 교구

교구	지역
1교구	대치, 개포
2교구	논현, 신사, 청담, 압구정
3교구	역삼, 도곡, 양재, 우면, 유곡, 신원, 염곡, 원지, 내곡, 포이, 일원, 수서, 새곡
4교구	반포, 잠원, 서초, 방배
5교구	동자구, 관악구, 과천, 안양, 평촌, 의왕, 신본, 수원
6교구	영등포, 구로, 양천, 강서, 인천, 부천, 김포, 금천, 광명, 시흥, 안산, 시화
7교구	용산, 중구, 종로구, 마포구, 서대문, 은평구, 일산, 고양
8교구	성북, 강북, 노원, 도봉, 의정부, 포천
9교구	성동, 광진, 동대문, 중랑, 구리, 남양주, 덕소
10교구	강동구, 하남시, 광주, 양평, 이천, 청주
11교구	송파, 잠실, 가락, 문정, 오금, 거여, 마천, 장지, 방이, 석촌
12교구	분당, 수지, 용인, 수원, 성남, 신갈
특별교구	청년, 직장

■ 동정 ■

- * 이종윤 목사는 19일(월) 총회주제위원회에 참여한다.
- * 이번 주 식사는 윤봉준 장로 · 김명화 집사가 가정에서 제공했다.
- * 오환실 집사(5교구)는 성동구 행당동에 의류점 G&B Club를 개업했다(☎ 2282 - 1182).
- * 할렐루야찬양대는 19일(월) 새 예배당 건축을 위한 기도회 및 현장 방문을 한다.
- * 베드로선교회 · 뱃비전도회는 24일(토) 70인전도대 주력부대로 활동한다.

■ 이사 ■

- * 임송자 집사, 강남구 대치동 현대아파트로(☎ 555 - 9687).

■ 이종은 목사 방송설교 ■

기독교방송(HLKY 98.1MHz) 성서강해 화요일 오전 5시 35분 ~ 6시
극동방송(HLKX 1188KHz) 생명은 빛으로 금요일 오전 9시 ~ 9시30분

서울주간기도

●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1. 홍해작전의 승전을 위해
2. 복음화된 통일조국을 위해
3. 교회학교 교사와 천국시민 양성을 위한 우리 교회 교육을 위해
4. 민족복음화와 세계선교의 산실이 될 예배당 건축을 위해

† 예배 및 집회

구분	시 간
주일 예배	I부 오전 9시
	II부 오전 11시
	III부 오후 2시
찬양 예배	주일 오후 5시
수요 예배	I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금요기도회	오후 9시
새벽기도회	매일 새벽 5시30분

† 교외약도

